

한국, 외환보유액 2,012억달러

작년 12월 말 기준... 9개월 만에 증가세 반전

외환보유액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천12억2천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7억2천만 달러가 늘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4월 37억6천만 달러가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5월 -22억 8천만 달러, 6월 -1억 달러, 7월 -105억 8천만 달러, 8월 -43억 2천만 달러, 9월 -35억 3천만 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에는 사상 최대폭인 274억 2천만 달러가 급감했고 11월에도 117억 4천만 달러가 줄었다.

한은은 보유 외화의 운용수익이 발생했고 유로화 등 기타 통화의 강세로 이를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환보유

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것도 외화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요인이 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달 한은과 정부는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대출과 수출입금융 지원 등으로 162억 달러를 시장에 풀어냈다. 이 가운데 104억 달러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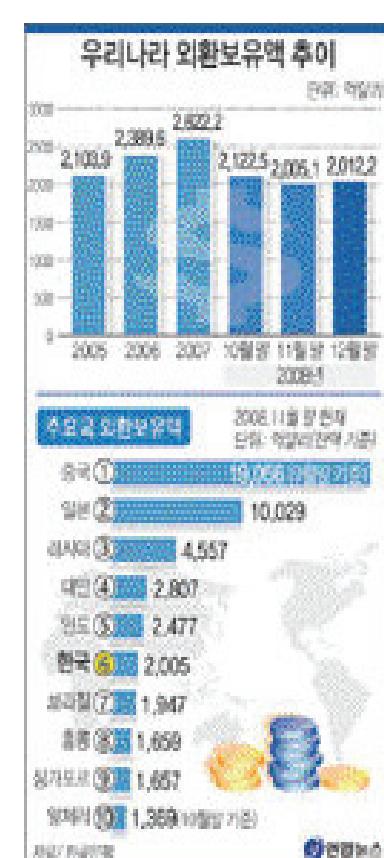
작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1조 9천56억 달러(9월 말 기준), 일본 1조 29억 달러, 러시아 4천557억 달러, 대만 2천 807억 달러, 인도 2천477억 달러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1천803억 8천만 달러(89.6%), 예치금 201억 달러(1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주공, 광주·전남에 7,000가구 공급

올해 광주·전남에 주공아파트 7천 가구가 공급된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5일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5천588가구, 공공임대주택 184가구, 분양주택 1천311가구 등 총 7천83가구의 아파트를 5월에서 10월 사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는 ▲영암 용암 554가구 ▲무안 낙암(3) 385가구 ▲영광 도동 531가구 ▲순천 가곡 571가구 ▲여수 죽립 A-1BL 830가구, A-2BL 775가구 ▲광주 수완 C-2-1+2BL 826가구, C-3-1BL 1천116가구 등이



또 분양은 ▲광주 지산 375가구 ▲광주 진월 C2BL 404가구 ▲광주 양동 532가구이고 공공임대는 ▲광주 양동 184가구 등이다.

특히 전체 물량 가운데 81%인 5천 772가구가 입대여서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공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공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http://kookmin.jungong.co.kr>)를 참고하거나 광주시 서

■ 2009 주공아파트 공급 계획		
공급형	지구명	세대수
분양	광주 지산주·한· 광주 진월C2BL 광주 양동주·한	375 404 532
공공 임대	광주 양동주·한	184
국민 임대	영암 용암 구구아담3동 영광 도동 순천 가곡 여수 죽립 A-1BL A-2BL 광주 수원 C-2-1+2BL C-3-1BL	554 385 531 571 830 775 826 1126
※주: 원·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구 치평동 광주·전남본부 사옥 내에 설치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견학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STX·대한조선 '한국의 젊은 신흥조선소'

일본의 유력 조선·해운 전문지가 연말·연시 특집기사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의 신흥조선소를 경제위기가 끝난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로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해사신문(The Japan Maritime Daily)은 지난해 12월26일자 1면에 ‘한국의 신흥조선소를 가다’란 특집기사로 신증조선소를 기자에게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신흥조선소를 가다’란 기사에서 경남 진해시 STX조선과 해남 대한조선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신문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급감, 해운시장의 신조선 취소가 계속되는 이 위기상

황이 끝난 후 살아남을 수 있는 조선소를 취재 했다”고 밝히고 성동조선해양 애드를 직접 찾아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애드와 건조선박 사진을 함께 실은 이 신문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3년전까지 조선업계 최강자였던 현대중공업 CEO를 지난 유관홍씨가 회장으로 영입되면서 젊은 회사에 노하우를 주입했다”며 “회사 직원의 85%가 ‘루키’(Rookie: 첫 입사한 선수)로 이들이 미래조선산업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유관홍 회장의 말을 언급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 정사원 1천820명의 평균 연령은 30.35세로 일본해사신문은 “일본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일본 조선업계

“경제위기후 살아 남을 强者”

日 海事신문 신년호에 실어

의 평균연령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측면에서 한 일간 가격 경쟁력이 역전됐다고 기뻐했지만 젊고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다”고 적었다.

이어 성동이 유럽과 미국의 유력선사들로부터 배를 수주해 수주잔량이 109척, 87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소가 완성되는 2009년에는 현재 협력업체를 포함 5천350명의 직원이 1만여 명까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해사신문은 이어 별도기사로 “2009년 발주취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기서 살아남는 신흥조선소들은 일본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일본 조선소들이 기술혁신에 나설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40억원짜리 대한민국 국새



발코니 창호공사 2년간 무상수리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유리는 1년 간) 하자가 생기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무상 수리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계약 후 공사금액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지급 전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공사가 끝난 뒤 2년 동안

제작해낸 것이다. /연합뉴스

정찬용 前 인사수석, 현대기아차 인재개발원장 사임

정찬용(사진)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장(사장급)을 사임했다.

정 전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해 말 1년여 동안 일해 왔던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세계적 자동차경기 치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왔다”고

/최재호기자 lio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주공아파트
국제보정기

리첸 광주
광주직영전시장 OPEN

062-671-1199

봉/선/동 마이에러시아

062-671-1199

062-671-1199

062-671-1199